

공동체 소식



부활 제5주일

하느님, 저희를 참포도나무 가지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소서,
성령을 보내 주시어, 저희가 참으로 서로 사랑하며,
거룩한 새 사람으로 평화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5월 기도지향

- 유길수 크리스토퍼, 유경애 아녜스 가정
- 고영방 스테파노, 김명은 안젤라 가정

☞ 교황님 기도 지향 : 우리가 무관심의 문화를 거부하고 고통 받는 우리 이웃, 특히 아픈 이들과 가난한 이들을 돌보도록 기도합니다.

성모성월

교회는 해마다 5월을 성모 성월로 지냅니다. 하느님의 어머니 이시고 믿는 이들의 어머니이시며 한국 교회의 수호자이신 성모님을 특별히 공경하고 그분에 대한 신심을 더욱 두텁게 하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이시기에 묵주기도와 성모 성월 기도를 자주 바칠 것을 권고합니다.

맨하턴 공동체 야외미사

- 일시 : 5/9(토) 오전 11시
- 장소 : Tuttle Creek Lake

청장년 남성 신자 피정

- 일시 : 5/15(금) ~16(토) 1박2일
- 장소 : Prairie Star Ranch Retreat Center(Williamsburg)

로렌스 공동체 야외미사

- 일시 : 5/16(토) 오후 5시
- 장소 : 로렌스 성당 근처 야외

기타

- 지난 5/1(금) '성모의 밤'에 함께 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 지난 4/25(토) 환자 봉성체가 있었습니다. 함께 해 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 다음 주일(5/10)은 '마더스 데이'입니다. 주일 애찬은 형제님들이 준비하겠습니다.
- 4월, 평협회의를 통해 사제관 리노베이션에 대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특히 낡고 냄새나는 주방 가구와 비좁은 화장실 공사를 중심으로 견적을 받기로 했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저희 캔사스 한인 천주교회의 초기부터 함께 하였던 양경직 돈보스코, 양정희 모니카 가정이 타주로 이사를 가십니다. 함께 해주셨던 시간들 감사드리며, 영육간의 건강을 기도합니다.

전례 성가

| 시 작 | 예 목 | 성 체 | 마 침 |
|-----|-----|---------|-----|
| 34 | 215 | 167/182 | 137 |

주일미사 복사

| | 시종 복사 | 항 복사 |
|----|-----------|-----------|
| 금주 | 문예나 요안나 | 정병훈 보니파시오 |
| | 정예찬 미카엘 | 문호진 안토니오 |
| 차주 | 고평원 프란치스코 | 안광민 제임스 |
| | 문예나 요안나 | 김준영 요셉 |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 | 해설자 | 제1독서 | 제2독서 |
|----|----------|---------|----------|
| | | 문석찬 요셉 | 백문주 엘리사벳 |
| 금주 | 김주연 세실리아 | 감영진 라파엘 | 한춘희 라파엘라 |
| 차주 | 박혜정 가타리나 | | |

애찬 봉사자

| | |
|----|---------------|
| 금주 | 최선윤, 김계숙, 조경희 |
| 차주 | 마더스 데이 |

헌금 봉사자

| | |
|----|------------------|
| 금주 | 김태중 예레미야, 문석찬 요셉 |
| 차주 | 정수한 베드로, 김대성 요한 |

우리들의 정성

하느님께 드리는 헌금과 교무금에 정성을 다해투셔서 감사합니다!!!

| | 영성체 | 헌금 | 교무금 |
|--------------------------------|-----|------|------|
| 4/26 | 70명 | 281불 | 950불 |
| 김호원, 박동희, 정지현, 주영길, 유길수(총 5세대) | | | |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요일: 7:30 PM
목요일: 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캔사스 한인 천주교회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 563-7896 www.kckcatholic.org

주보 편집 : 박동희 안나 660.853.9984 flyanna@gmail.com

주임신부 주영길 토마스
M: 913.633.1273
jooyk88@gmail.com

회장 홍순의 마르티노
M: 913.486.4204

부회장 김태중 예레미야
M: 913.963.7521

재무 차호섭 요셉
M: 614.598.7908
hscha72@gmail.com

오늘의 전례

모든 생명체가 꿈틀거리면서 약동하는 봄의 절정인 오늘은 부활 제5주일입니다. 또한 부활시기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덕분에 우리 안에 생명이 넘쳐흐르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포도나무 가지들처럼 예수님에게서 생명을 전해 받는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 복음과 삶의 기쁨을 증언하면서 생명의 문화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청하며 오늘 미사를 봉헌합니다.

그림 묵상

참 포도나무의 예수님

농부이신 하느님과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의 관계처럼, 포도나무인 주님과 가지인 인간 사이의 관계가 사랑으로 맺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지 못할 때 버려진 가지처럼 말라 버리는 영혼을 보게 됩니다. 향기나는 포도송이가 되어 하느님 나라의 향아리에 담기는 포도주가 되길 소망하는 저희를, 주님! 어여뻐 여기소서.

정미연 소화데레사

제 1 독서 : 사도행전 9,26-31

< 어떻게 길에서 주님을 뵈게 되었는지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

화 답 송 :



큰 모 임 에 서 저 의 찬 미 도 주 님 에 게 서 오 리 이 다.

- 주님을 경외하는자 앞에서 저의 서원을 채우리다. 가난한 이들 배부르게 먹으리이다.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당신을 기리며 너희 마음 길이 살아라 말하리이다. ◎
- 땅이란 땅끝마다 돌이켜 주님께 돌아오고 만백성 온갖 족속이 당신께 절하오리다. 땅속에 잠든 이들이 홀로 주님을 흠송하오리다. 흠송으로 가는 자들이 모두 다 주님 앞에 굽히오리다.◎
- 주님을 위하여 제 영혼은 살고 저의 후에는 당신을 섬기며 미래의 세대에게 두님을 들어 말하오리다. 주님께서 이같이 하셨다 이르며 태어날 백성에게 그 의를 전하오리다. ◎

제 2 독서 : 요한 1서<3,18-24>

< 믿고 사랑하라는 것이 하느님의 계명입니다.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

복 음 :

요한 15,1-8 <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



“머무름”



“이제 교회는 유다와 갈릴래아와 사마리아 온 지방에 평화를 누리며 굳건히 세워지고,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면서 성령의 격려를 받아 그 수가 늘어났다.” 사도행전이 전해주는 이 내용에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사도들의 선교 활동이 이스라엘 온 지역에 미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까지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라면 이후부터 이스라엘 지역 이외의 지역에도 복음이 선포되었다는, 이방인들에게도 본격적으로 구원의 소식이 전해지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오늘 독서에서 소개된 사울, 곧 바오로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교회가 어떻게 온 세상으로 퍼져가게 되었는지 보여주는 책입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이 교회의 외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면 오늘 들은 제2독서와 복음은 내적인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요한 1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하느님의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분 안에 머무르고, 그분께서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십니다.” 여기서 강조가 되는 것은 ‘머무름’입니다. 누군가 하느님 안에 머무르고 또 하느님 역시 계명을 실천하는 이들 안에 머문다는 것이 요한 1서의 신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머무름’이란 주제는 요한복음에서도 반복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도나무에 관한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되는 예수님과 신앙인과의 관계는 내적인 모습이자 신앙의 원천에 대한 말씀처럼 들립니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 것도 하지 못한다.”

머무름과 열매는 신앙의 내, 외적인 면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신앙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과 서간은 머문다는 표현은 많이 사용합니다. 이 관계에 대한 표현은 신앙인의, 신앙 공동체인 교회의 모습을 잘 표현해 줍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처럼 개인이나 공동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무엇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머물러 있는 것이 모든 활동의, 모든 행동의 원천이 되어야 합니다. 열매는 머물러 있는 것을 통해 얻어지는 결과이지 열매만을 맺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신앙인 개개인에게도 필요한 말씀이지만, 공동체에게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교회 활동의 모든 힘은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아무리 그 열매가 좋다고 하더라도, 신앙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신앙 공동체의 열매는 아닐 것입니다.

한국교회 역시 빠른 성장을 해왔고, 여전히 그렇습니다. 많은 새로운 신앙인들이 생겨나고 공동체는 더 커져갑니다. 외적으로 보이는 이런 모습은 좋은 열매입니다. 많은 이들의 수고로 맺은 열매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눈을 내적인 모습으로 돌릴 필요도 있습니다. 물론, 열매를 통해, 결과를 통해 우리 신앙의 내적인 면을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항상 같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을 통해 주님과 함께 머무는 것은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머물러 있지 못한다면 우리의 열매는 그저 인간적인 수고의 결과일 수는 있지만 신앙으로부터 오는 결과는 아닐 것입니다.

활동하는 만큼 주님과 더 함께 머물도록 애쓰고, 그것을 통해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보여지는 결과에 연연하기 보다, 쉽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주님 안에 침잠하는 것의 결과로 열매 맺을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조금은 더딜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통한 가르침이라 생각합니다.

- 가톨릭대학 허규 신부 -

성모님께 드리는 편지

 성모님! 얼마 전, 당신께서 메주고리에서 주신 메시지는 “사랑하는 아이들아, 오늘도 절대자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면서 회개의 길로 인도하도록 허락하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저는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일단, “오늘 절대자께서” 가 아니라 “오늘도 절대자께서” 라고 하신 것을 보고 저는 “아! 성모님은 지속적으로 인간의 참됨을 위하여 기도하시는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더불어 당신께서 저희 인간을 대변하시면서 저희에게 바른 마음가짐과 삶을 갖출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추가로 수시로 주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성모님! 제가 이 글을 쓰기 위하여 참고하기 위하여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른 예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의 글을 보고서는 “저 분은 정말로 신심이 깊으시구나,” 또는 “저 분은 불공평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당신께 기도하여 그 상황을 이겨내셨구나” 등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 분들만큼 신심이 깊은 것 같지도 않고, 정말로 좋은 부모님을 만나서 큰 탈 없는 삶을 산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저는 복 받은 가정환경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가끔씩 큰 탈 없는 삶 때문에 성모님과 멀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기도를 할 간절한 마음이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럴수록 남을 위하여 기도할 마음이 생겨야 하는데, 저는 아직 그런 마음조차 없습니다. 성모님! 제가 이러한 마음가짐을 갖출 수 있도록 저를 위하여 기도해주세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이가 자신보다 남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 할 수 있는 날까지 저희를 위하여 기도해주시고 보살펴 주세요.

저희는 성모님에게 저희 삶의 개선을 위하여 끊임없이 요구하고 기도를 청합니다. 하지만 정작 저희가 성모님을 위하여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당신께서는 항상 부족하고 이기주의적인 저희를 위하여 넓은 마음으로 너그러이 받아주시고, 더 나아가 저희를 예수님께 인도하여 주십니다. 아멘.

- 종교동부 정병훈 보니파시오



성모님께, 향기가 가득한 5월이 찾아왔습니다. 연두색 새싹들도 초록으로 싱그러워지고, 솔솔 불어오는 바람에 초록의 향기와 꽃내음이 진하게 전해집니다. 얼마 전, 학교 가는 길에 어미 매가 아기 매의 날갯짓 연습을 시키는 모습을 우연히 목격하였습니다. 어미가 먼저 한 그루 나무에서 다른 나무로 사뿐히 옮겨가면, 아기 매가 애타게 어미를 부르며 서투른 날갯짓을 하면서 간신히 따라가더라고요. 한참을 지켜보는 저는 행여나 저 아기 매가 떨어지면 어쩌나 가슴이 철렁했는데, 서툴렀던 날갯짓이 어느새 조금씩 조금씩 익숙해지며 조금 더 멀리 떨어진 나무로 자신감 있게 날아가는 모습을 보았어요. 절로 부듯한 마음이 들며 웃음이 지어졌습니다. 지켜보는 행인인 저도 하물며 이러한 마음이 들었는데, 그 어미 매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생존을 위한 가르침을 넘어서 그 어미 매는 자식을 믿었겠지요. 어려움과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잘 해낼까라는 굳은 믿음이 마음 속 깊이 자리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켜보고 기다려주고 함께 해준 것이 아니었을까 헤아려보았습니다.

성모 마리아님의 삶을 묵상해보게 됩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성자를 잉태하셨고, 낳으셨고, 기르셨습니다. 죄 없는 성자께서 사형 선고를 받으심을 오로지 지켜 보셔야만 하셨었고, 매 맞고, 모욕 당하고, 십자가 지시는 것을 보셔야만 했습니다. 매 순간을 아드님의 한 걸음 한 걸음을 함께 걸으셔야 했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감내하면서 오로지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그 충실한 믿음으로 말이지요, 당신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느님의 지혜와 방법을 굳게 믿으며 인내하시고 기다리셨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시리라는 소식을 전하셨을 때,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응답하셨습니다. 겸손하게 따르시며 순종하셨지요.

저희는 성모님을 어머니라고 부르고, 어머니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은총을 받았습시다. 어머니의 그 충실한 믿음, 순종의 자세, 겸허히 받아들이는 겸손한 마음가짐, 하느님의 방법을 굳게 믿으며 기다리는 인내, 그 사랑의 깊이를 닮고 싶습니다. 진실한 마음을 담아, 이 고요하고 찬미 가득한 밤에 당신 앞에 겸손되어 저희들의 마음을 봉헌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모든 만남에 감사하게 하소서, 어머니의 순종을 기억하며, 어머니의 고통을 기억하며, 십자가 아래 눈물을 기억하겠습니다. 항상 어머니와 더불어 주님께 순종하고 감사하게 도와주소서, 어둠을 밝히는 작은 촛불처럼 희망을 잃지 않는 용기와 어머니의 가르침에 따라 겸손과 끝없는 인내로 기도 속의 하루를 살게 하시고, 봉사 속에 기쁨을 찾게 해 주소서, 주님께 끝없는 영광을 드리며, 어머니께 캔사스 본당 공동체의 뜨거운 사랑을 드립니다. 아멘.

- 청년부 이현주 베네딕따